

회생신청 때 숨긴 소득, 무조건 사기죄일까?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숨긴 것은 아닐까?”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허위로 도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아닌지의 관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에 관해 허위의 내용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법원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주

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한다.

채무자 A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안 요약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A가 받는 월 급여를 400만원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A는 회사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추가수당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검찰은 채무자 A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재해 법원을 기망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로 기소했다.

원심 법원은 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의 수입에 관한 허위진술을 근거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졌고, 이를 전제로 회생채권에 대한 상황 여부, 면제 범위 및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을 산출했는데, 만일 추가수당이 반영됐다면 회생채권에 대한 상황가능금액, 면제율,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해 달리 정해졌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바꿔 A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가 추가수당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를 그대로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변제채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A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전후해 추가 수당을 수령했는데, 결정 이후 추가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도산절차의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아 재정적 곤궁에서 벗어난 이후의 이익을 갖고 추가적인 근로 등을 제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재산 누락이 곧바로 사기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닉된 소득이 반영되었을 때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져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율이 명백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등 인가 결정에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단편적인 소득 누락만을 꼬투리 잡아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것이 인가 결과에 미칠 실질적 영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차세대 배터리 전쟁의 시간



**기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 CATL이 ‘수퍼 테크데이’ 행사장에서 꺼내 든 숫자는 우리 배터리 업체를 얼어붙게 했다. 10%에서 80%까지 단 3분 44초. 완충에 가까운 98%까지도 6분 27초. 영하 30도 혹한에서도 10분 안에 충전이 끝난다. 거기에 반고체 수준의 신형 배터리를 탑재한 세단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500km를 달릴 수 있다.

“한마디로 공포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한 전문가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다. 기술 격차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중간의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숫자는 냉정하다. 올해 1~2월 중국을 제외한 미국·유럽 등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8.3%로 전년 동기 37.1%보다 8.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CATL과 BYD의 합산 점유율은 36.7%에서 44.2%로 7.5%포인트 상승했다. 판이 기울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미 판 자체가 없어졌다.

뒤집어진 판에서 한국업체들이 꺼내 든 반격 카드는 전고체 배터리다. 삼성SDI는 최근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전고체 브랜드 ‘솔리드스택’을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고체가 시장 주도권을 바꾸려면 얼마나 걸릴까. 업계 인콰의 답은 한결 같다. 지금부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 자체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초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 일부 프리미엄 모델과 로봇에나 쓰일 것이다.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건 미·중 갈등

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터리를 밀어내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이 기술 격차를 매워주진 않는다.

배터리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보루다. 그 보루가 흔들리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정작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차세대 배터리 국가 R&D 로드맵 수립 등 말은 무성했지만 속도가 없다.

기업이 뛰는 동안 정부는 제자리걸음이다. 중국이 국가 자본과 정책을 총동원해 배터리 생태계를 키우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홀로 버텼다. 그 한계가 지금 점유율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하나의 기술력으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에 이길 수는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국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6일 (음 3월 2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옛 인연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와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60년생** 무리한 확장은 금물이나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세요. **72년생** 출장이나 외출에서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84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지갑 관리에 신경 쓰세요.
- 49년생**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집니다. **61년생** 업무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면 오전 시간이 길합니다. **73년생** 작은 양보가 큰 이득으로 돌아오니 먼저 손을 내미세요. **85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입니다.
- 50년생** 건강 컨디션이 매우 좋으니 활력을 유지하세요. **62년생**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이 생깁니다. **74년생** 실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86년생** 연인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솔직함이 최선입니다.
- 51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하세요. **75년생**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87년생**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성실함으로 승부하세요.
- 52년생** 문서 운이 좋으니 계약이나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기 좋습니다. **64년생**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쌓기에 좋습니다. **76년생** 예상치 못한 작은 보너스가 기대됩니다. **88년생** 자기개발에 힘쓰면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 53년생** 운전이나 보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65년생**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경청하세요. **77년생** 투자나 투기성 거래는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89년생**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문제 없습니다.
- 54년생** 주변의 칭송을 들으니 명예가 올라가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66년생** 협력자가 나타나 막혔던 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78년생** 직장에서 승진이나 포상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90년생** 애정운이 최고조입니다.
- 55년생** 자녀의 경사로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날입니다. **67년생**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 원하던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79년생** 업무 효율이 좋아지니 조기 퇴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91년생** 끈기 있게 밀어붙인 일이 결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 56년생**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이동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감정적인 대응은 일을 그르칩니다. **80년생** 구설수가 우려되니 비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2년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 57년생** 기본 전환을 위해 짧은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추천합니다. **69년생** 직장 내 중재자 역할을 맡아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81년생**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니 가게 운영에 승용이 트입니다. **93년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날입니다.
- 58년생** 근심하던 일이 해결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70년생** 동료들과의 협동심이 발휘되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82년생**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94년생** 적극적인 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
- 59년생**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다 본인 일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1년생**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합니다. **83년생** 작은 실수가 커질 수 있으니 업무 검토를 두 번 세 번 하세요. **95년생** 경청하는 자세가 이득입니다.



김상희의四季 기도로 만든 인연

10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 중소 의류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K양은 79년 기미생(己未生) 정월 생일인데, 삼십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몹시 초조해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남자친구를 만난 것 빼고는 모태 솔로 소리를 들을 만큼 남자친구 인연이 없었다. 소개팅해도 내 마음에 괜찮으면 상대방이 반응이 없고, 남자 쪽에서 괜찮아하면 내가 싫거나 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삼십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자 혹시 평생 남자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던 차에 필자를 찾아왔다. 살펴보니 월지에 귀문살이 있었고 일지와는 원진살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만나서 잘 나가다 사소한 일로 삐져거리며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옛날이 인연이 특징이다. 내가 좋아하면 나를 탐탁해 하지 않고 나는 별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은 호감을 표시한다. 상대방이 나 좋다는 티를 내면 마음은 화들짝 놀라 더 도망가는 형국이 바로 귀문과 원진이 함께 할 때의 인연 특성이다. K양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남녀 인연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필자를 펼쳐 보면 알 수 있다. 해결방법은 사주 중 귀문살이 있기에 방해 없이 인연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조상기도와 함께 칠성 기도이다. DNA로 직접 인연 줄이 닿는 조상 영가들을 흠뻑하는 것은 자손들의 앞날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는 민간신앙적인 믿음이며, 여기에 좋은 인연을 가피한다고 알려진 칠성 기도는 인간사 약초 같은 힘이 있다. 우연의 일차라 볼지 몰라도 이 기도 발원 후 K양은 소개받은 남성과 1년 안에 혼인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딸을 얻었다. 그 딸의 이름을 필자가 작명해 주었고, 그아가가 벌써 자라서 중학교에 간다며 일요 법회에 함께 참석했다. 과학이 발달해도 설명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다. 손해 볼 것 없다. 기도가 담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2	7		6		8
9		3			2	1
		9	2		1	
	5					3
			5		3	6
	7	2	4			9
	3			2		8
4	8					3

1	9	7	6			4	8
	2					8	7
8	7						3
				9			5
			8	5	7		
7			1				
2							4
6	5	4					9
4	1				8	9	5

8	9	2	1	9	8	6	7
1	8	7	2	6	5	8	9
8	9	6	5	8	7	2	1
6	2	9	8	9	7	1	1
1	8	7	8	6	1	9	2
9	1	9	1	7	2	6	8
7	8	1	2	8	9	6	8
7	8	6	9	1	1	2	9
2	6	1	9	5	1	7	8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0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